

중국어 ‘有’, ‘是’자 존재문의 한국어 대조 분석

윤비취*

목 차

1. 서론
2. 선행연구
3. 존재문의 범주 설정
4. 존재를 나타내는 ‘有’자문과 ‘是’자문의 한국어 대응 관계
5.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먼저 중국어 존재문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존재문의 범주와 동사 서술어에 따른 의미기능 상의 차이를 살피고 한국어와의 대응 관계를 분석한다.

먼저, 중국어 존재문의 주어의 자리에 위치하는 성분은 반드시 [+공간성]을 나타내야 하며 일부는 [+구체성], [+추상성]의 의미적 자질을 가진다. 또한, ‘是’자 존재문은 ‘有’자 존재문에 비해 목적어의 비한정성 등 사용상의 제한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객관적인 존재 의미를 나타낸다. 반면에, ‘是’자 존재문은 제한 요소가 많으며, 문형이 확산 및 긍정의 의미기능을 내포한다. 양 언어의 대조 면에서, ‘有’자 존재문은 주로 동사 서술어 ‘有’와 한국어 주격조사 ‘-이’를 수반한 서술어가 서로 대응 관계를 이루고, ‘是’자 존재문은 ‘是’은 주로 서술격조사 ‘이다’를 수반한 서술어와 대응한다.

키워드: 중국어 존재문, ‘有’자 존재문, ‘是’자 존재문, 의미기능, 범주, 한국어 대응 관계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강사

1. 서론

본 연구는 중국어 존재문의 범주를 확인하고 존재 의미를 나타내는 ‘有’자문과 ‘是’자문의 한국어 대응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존재문이란 특정 공간에 모종의 사물이 존재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을 말하며, 주어 자리에는 공간 또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출현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 大涼山的中部**有**一座千峰疊翠的螺髻山, 30多个冰川湖就散落在山谷中。
(다리양산의 중부에는 수천개의 푸른 뿔지산이 있고, 30여개의 빙하호가 산골짜기에 흩어져 있다.)
- (2) 南**有**昆侖山, 北**有**阿爾泰山, 中部**是**天山。
(남쪽에는 쿤룬산 북쪽에는 타이산이 있고, 중부는 텐산이다.)
- 〈航拍中國〉

위의 예문은 모두 사물이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존재문에 속한다. 예문 (1)의 선행절은 ‘有’자 존재문의 전형적인 구조를 나타내는데, 주어 자리에는 ‘공간어’가 위치하고 비한정명사를 목적어 성분으로 수행한다. 이와 달리, 예문 (1)의 후행절은 동작 행위로 인한 결과적인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으나, 이는 ‘동사+在+공간어’의 구조를 사용하여 공간어의 위치가 주어의 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존재문에 속할 수 없다.¹⁾ 다음으로, 예문 (2)는 ‘有’자 존재문과 ‘是’자 존재문이 한 문장에서 사용된 상황으로, 문장의 의미에 따라 ‘有’자 존재문과 ‘是’자

1)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존재문은 주어 자리에 공간어가 위치해야 하므로 동사 ‘在’ 또는 전치사 ‘在’, ‘于’는 존재문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또한 학교문법에서 존재문을 나타내는 동사는 ‘有’, ‘是’, ‘V+着’로 보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동작의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동태적 존재문인 ‘V+着’구조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적 존재 의미를 나타내는 ‘有’자 존재문과 ‘是’자 존재문의 의미기능 및 한중 대응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존재문이 호환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으나 결코 동일한 구문의미를 나타내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아래에서 다시 존재의 의미를 이끄는 두 동사의 사용이 호환 관계에 있는 예문을 살펴보자.²⁾

- (2) a. 伊犁河谷的西部**有**一座奇特的小城。
 (이리허구의 서부에는 독특한 성이 있다.)
 b. 伊犁河谷的西部**是**一座奇特的小城。
 (이리허구의 서부는 독특한 성이다.)

<航拍中國>

상기 예문은 표면적으로 동일한 명제를 나타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즉, 위의 예문 (2a)은 목적어인 대상의 한 부류가 주어인 공간어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예문 (2b)은 대상이 특정 공간에 존재한다는 의미에 화자의 개입이 이루어져 판단 및 확인의 의미가 부가되었으며, 동시에 주어인 공간어에 존재하는 대상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넓다. 이밖에 두 구문은 사용상의 기타 측면에서 기능상의 차이를 가지는데, 이를 한국어의 대응 관계를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 상황을 살펴보자.

- (3) a. * 我們辦公室里**有**他。 → 他**在**我們辦公室。 [+ 존재]
 (이 선생은 우리 사무실에 있다.)
 → 我們辦公室**有**他。 [+ 소유]
 (우리 사무실에 이 선생이 있다.)
 b. * 辦公室里**有**昨天購買的那本書。 → 李老師**有**昨天購買的那本書。
 (이 선생님은 어제 구매한 그 책이 있다.)

2) 위의 예문은 중국 다큐멘터리 <航拍中國>의 자막에서 추출한 이후 본고의 분석을 위해 다소 간의 수정을 거쳤다.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초급 수준의 중국어 학습자 중 자주 존재와 소유의 의미를 혼동하여 오류가 나기도 하는데, 이는 한국어의 '있다'의 의미 항목 범위가 존재와 소유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먼저 예문 (3a)에서는 주어의 자리에 공간어가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문에 속하지는 않으나³⁾, 문장 전체가 존재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사 '在'를 사용해야 하며 소유 의미를 나타내려면 주어 자리에 있는 공간어가 방위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하지만, 문장의 의미가 소유인지 존재인지 그 경계가 애매하다. 예문 (3b)은 의미상 명확한 소유문으로 주어 자리에 대개 [+유정]인 명사가 위치하며 대상은 [±한정] 모두 가능하나, [-유정]의 명사가 주체일 경우 대상은 [-한정]인 명사를 수반해야 한다.

이처럼, 중국어 존재문의 범주는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더러 있으며 존재문에 속한다 할지라도 표면적으로 동사 '有', '是'의 종류에 따른 의미기능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존재문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물들을 찾아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중국어의 존재문의 범주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대응 관계 분석을 통해 중국어 '有'자문과 '是'자문의 의미기능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중국어 존재문에 대한 연구는 그 수량이 많지는 않으나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한중 대조의 연구 방법으로 중국어 존재문의 범주나 의미기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전 연구 결과들은 'NPL(공간어)+V(了/着)+NP'

3) 張曉蝶(2014:145)에서는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구조와 의미 결합의 기준으로 존재문은 '시간/공간어+동사+着/了'의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본고도 이에 따라 중국어 존재문은 주어 자리에 시간 또는 공간어가 위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조로 나타내는 동태존재문의 구조적 특징 및 수반하는 동사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어 존재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성과들을 수집, 정리하였는데 주요 특징을 가지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張曉蝶(2014)에서는 존재문의 유형을 ‘공간어+ 동사+ 명사’의 완정형과 존재문을 이루는 문장 성분 중 하나가 생략된 비완정형으로 이분하고 예문을 통해 존재문의 범주에 대해 분석하였다. 해당 논문은 존재문의 비완정형은 다시 공간어, 동사, 공간어와 동사가 함께 생략된 세 구조로 나누었다. 예를 들어, ‘過了一會兒, 隱隱響起雷聲(잠시 후 은은한 천둥소리가 났다)’과 같이 시간이나 공간이 강조될 필요가 없거나 보충될 필요가 없을 때 공간어가 생략될 수 있으며, ‘天空中一彎新月(하늘에 새로 뜬 초승달)’과 같이 객관적인 사물을 설명함으로써 사물의 존재 방식을 묘사할 필요가 없을 때 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他滿臉的眼淚(그는 얼굴에 눈물이 가득하다)’과 같이 명사가 존재문의 주체일 경우 이러한 유형도 존재문의 하나의 종류라고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존재문의 범주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며 이 세 유형은 본 논문에서 말하는 존재문의 범주와 차이가 매우 크다.

다음으로, 崔璨·袁毓林(2019a)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 형용사와 술보구조가 모두 존재문에 사용될 수 있으며 동사 뒤에 ‘着’나 ‘了’가 붙어 구성되는 존재문에 대하여 고찰하고 존재문의 명사화 및 ‘VP+的’로의 전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사역성 동사를 수반한 동사의 ‘着’자 존재문은 대개 명사구로 관계화가 가능하며 ‘VP+的’의 구조로 전환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櫃子上貼着喜字(옷장에는 희자가 붙어있다)’ → ‘貼着喜字的櫃子(희자가 붙여진 옷장)’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공간 논항의 필요성과 우선성, 공간 정보와 행위자 정보의 문장 특징, 그리고 ‘了’의 변화의미 은폐의 3가지 요인을 소개하였다. 즉, 존재문의 원형구조를 ‘NPL(공간어)+V(了/着)+NP’로 보았으며 여기서 공간어는 동사의 필수 논항으로 주어의 위치에 와야 하지만 행위자는 존재문의

필수 성분이 아니어서 조건적으로 삽입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행위자 성분을 삽입함으로써 공간과 행위자가 존재문 속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V+NP(대상)+的+NP(행위자)'로 구성된 존재문에서는 공간 정보가 제공되는데, 이로써 존재문의 명사화 형식과 공간 논항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해당 논문은 존재문의 구조와 명사화의 전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기타 연구 내용에 비해 참신하지만, 정태 존재문의 형식과 기능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었다.

같은 해에 崔璨·袁毓林(2019b)에서는 '有'자와 '是'자 정태적 존재문의 의미적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는 '有'자 존재문의 목적어는 실체를 지칭하는 의미가 강하나 '是'자 존재문의 목적어는 속성의 기능을 지칭하며 배타성과 보편성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是'자 존재문의 의미 기능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는데, '충분량(足量)'은 '是'자 존재문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현재함'이 가지는 '주관성'이 주요 특징이라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충분량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 동사 '是'이 가지는 대등 및 부류의 의미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그리고 그는 주관성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이유를 '인지틀'과 '현재도'의 두 개념을 토대로 분석하였는데, 전체가 부분보다 현재하며 용기가 내용보다 현재하다는 인지적 이론에 근거하여 존재문의 주어 성분에 있는 공간어가 용기에 해당하여 현재성을 가지지만 목적어 대상은 내용에 해당하여 배경으로써의 작용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해당 논문은 '是'자 존재문의 의미기능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열거하여 이를 기반으로 결론을 도출해내었으나, '是'자 존재문에서 현재성을 나타내는 성분이 주어 공간어가 된다는 분석의 결과는 본고의 생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어서, 이슬기(2021)에서는 존재구문을 정태 존재문과 동태 존재문으로 나누고, 정태 존재문은 다시 단순 존재문과 상대 존재문으로 나누었다. 즉, 단순히 존재만을 나타내는 단순 존재문으로는 '有'자 존재문과 '是'자 존재문, 그리고 무동사 존재문(주어+목적어)가 있는데, 앞의 두 존재문은 조건적으로

상호 교체 관계를 이루며 이를 통한 차이 및 그 원인을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有'자 존재문의 경우 상고시기 소유의미의 동사에서 존재 및 정도의 강조, 동작의 완료 등의 파생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존재문의 내부구조와 비대격동사, 처소성 주어, 비한정 목적어를 성분으로 갖는 범언어적 존재구문의 보편적 특성을 지니며 지금의 존재문을 형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是'자 존재문의 경우 상고시기 재지시의 기능에서 출발하여 중고시기 판단동사로부터 점차 기사로 변천하여 근대 이후 비로소 판단문을 형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존재나 소유 등 파생 의미를 지니며 점차 존재문이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통시적 변천 과정을 통해 '有'자 존재문은 존재에 대한 객관적 진술을 나타내지만 '是'자 존재문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미의 중점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해당 논문은 존재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차이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본고의 생각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나, 한국어와의 대조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양우(2021)에서는 구문문법의 시각을 통해 한중 존재문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중국어 존재문의 구문형식은 'NL+VP+NP'이며, 구문논항은 장소 대상, '어떤 장소에 무엇이 존재함'이라는 구문의미를 가지며, 한국어 존재문의 구문형식은 'NL에 NP가 V어/아 있다'이며, 구문논항은 동일하게 장소 대상, '어떤 장소에 무엇이 존재함'이라는 구문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양 언어의 차이를 주로 동태 존재문의 형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주요 구성요소인 장소어, 술어, 존재대상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구문들 간의 연결을 설명하는 원리 중 하나인 다의성 연결은 중국어 정태 존재문과 동태 존재문이 동일한 구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더불어 중국어 존재문은 확장성이 큰 반면에 한국어 존재문은 상대적으로 작는데, 이는 구문의 실현양상이 개별 언어의 특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기술하였다. 해당 논문은 양 언어의 존재문을 구문문법의 시각으로의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

출하였는데 큰 의미가 있으나, 주로 동태 존재문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정태 존재문의 대조 분석 내용은 거의 없었다.

3. 존재문의 범주 설정

존재문은 범언어적인 현상으로 특정 시공간에 존재하는 모종의 개체를 나타내는 문장을 가리키며, 대부분 언어 속에서 각자의 문법 표지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존재문은 각각 ‘NP₁(공간어구)+NP₂+VP(존재동사)’와 ‘NP₁(공간어구)+VP(有/是)+NP₂’의 구조를 가지며 기본적인 구문의미는 유사하지만 문법 범주 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어는 규정된 통사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으나 주로 정태적 존재문만 포함하는 반면에 중국어는 동태적 존재문까지 포함하여 그 허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그밖에 중국어 존재문을 이루는 동사에 따른 의미기능 차이로 인해 존재문 범주의 설정 문제는 실로 간단하지 않으며, 학교문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기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래에서 중국어 존재문의 범주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1) 동태적 존재문과 정태적 존재문의 구분

중국어의 존재문은 ‘NP₁(공간어구)+V着+NP₂’를 사용한 동태적인 부류와 동사 ‘有’와 ‘是’를 사용하여 ‘NP₁(공간어구)+‘有’/‘是’+NP₂’의 구조로 나타내는 정태적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동태적, 정태적인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4) 我們會看到鑲嵌在它北坡山腰上的天池。

(우리는 북쪽 산중턱에 끼어 있는 천지를 볼 것이다.)

(5) 今年又有100多只小天鹅在这里出生。

(올해 또 백여 마리 새끼 백조가 이곳에서 태어났다.)

<航拍中國>

위의 예문 (4)와 같이 전치사구 '在它北坡山腰上(북쪽 산중턱에)'가 동작 동사 '鑲嵌(껴있다)'에 후행하는 경우는 동작의 결과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동태적인 부류에 속하며, 이는 주로 한국어 '-에'와 대응한다. 그러나 예문 (5)와 같이 전치사구 '在这里(이곳에서)'가 동작 동사 '出生(태어나다)'에 선행하는 경우는 동작 발생의 기점을 나타내는 정태적인 부류에 속하며, 이는 주로 한국어 '-에서', '-에'와 대응한다. 그러나 존재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在', '于'⁴⁾와 중국어 동사 '在'는 존재문을 이루는 전제 조건인 공간어를 주어 자리에 두지 않기 때문에 존재문에 속하지 않는다. 아래에서 동태적 특징을 나타내는 중국어의 존재문인 'NP₁(공간어구)+V着+NP₂'에 해당하는 예문을 살펴보자.

(6) a. 桌子上擺着中國的禮品。 (테이블 위에 중국 선물이 놓여있다.)

b. 中國的禮品在桌子上擺着。 (중국 선물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

(7) a. 床上躺着一個人。 (침대 위에 한 사람이 누워있다.)

b. 一個人在床上躺着。 (한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다.)

(CCL)

위의 예문 (6a)와 (7a)은 동사의 의미적 특징에 의해 [+동태성]의 특성을 나타내며 중국어 존재문에 포함하나, 예문 (6b)와 (7b)는 주어가 공간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존재문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어 자리 공간어 유무의

4) 전치사구가 공간어를 포함하는 경우 'V+在+NP'와 'V+于+NP'의 구조를 사용하여 동작 행위가 발생하는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전치사 '在'와 '于'의 의미기능 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본고의 분석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에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차이로 인해 분류되는 중국어의 ‘동태적 존재문’과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는 일종의 ‘지속상’⁵⁾ 문장은 통사적 차이 외에 어떤 의미적인 차이를 지닐까? 이는 초점상의 차이에 있다. 즉, 동태적 존재문에서는 신정보 문미 초점 원칙⁶⁾에 의해 화자는 존재 대상인 ‘中國的禮品(중국 선물)’과 ‘一個人(한 사람)’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일반 지속상의 문장에서는 수식어 성분의 초점⁷⁾에 근거한 동사 앞 전치사구인 ‘在桌子上(테이블 위에)’과 ‘在床上(침대 위에)’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어 동태적 존재문에 해당하는 문장은 한국어에서 존재문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다음 장의 한중 대조의 분석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有’자 존재문과 ‘是’자 존재문 주어의 의미적 특성

중국어 존재문의 주어의 자리에 위치하는 성분은 반드시 [+공간성]을 나타내야 하며 보통 명사 뒤 단순 또는 복합 방위사를 함께 수반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는 보통 공간어 뒤에 방위사가 붙지 않으며, 중국어에서도 예외적으로 방위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예문을 보자.

(8) a. 山上有一个大村子。 (산에 큰 마을이 하나 있다.)

5) 여기서 말하는 지속상이란, 우리가 익히 아는 상(動態, Aspect)를 가리키며, 동작 발생 후 상태가 지속되는 문법 형식을 말한다.

6) 주지하듯이, 중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국어 정보 원칙에 의해 특별한 문법적 장치가 없는 한 문미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해당 예문도 마찬가지로 문미에 위치한 대상인 목적어 성분에 초점이 있다.

7) 陸儉明·沈陽(2006:364)에서는 수식 성분의 초점 기능에 대해 소개하였다. 예를 들어, ‘他贊成的意見(그가 찬성한 의견)’은 의미기능 상 성립하는 반면에 ‘*他提出的意見(그가 제기한 의견)’이 비문이 되는 이유는, 청자가 중심어에 이미 수식 성분에서 나타내는 의미를 유추하고 있기 때문에 초점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논문도 이에 대한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해당 예문인 존재문과 지속상 문장의 경우에도 수식 성분의 초점화 기능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b. * 山有一个大村子。
- (9) a. 圖書館有wifi。 (도서관에는 와이파이기가 있다.)
 b. 圖書館里有一个小房間。 (도서관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다.)
 (BCC)⁸⁾

위의 예문 (8)과 같이 보통 '有'자 존재문의 주어 자리에는 공간어 뒤에 방위사를 수반하지만, 예문 (9a)과 같이 주어인 공간어가 방위사 없이도 장소명사의 성격이 짙으며 [+구체성]을 나타내는 경우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중국어 '有'자 존재문의 경우 주어가 [+구체성], [+추상성]의 의미적 자질을 가질 수 있는데, 이를 아래 예문에서 살펴보자.

- (10) 可是, 我有夢, 夢中有藍天, 有彩虹。
 (그런데 나는 꿈이 있어요. 꿈속에 파란 하늘과 무지개가 있다.)
 (11) 我的心有一种恍惚。(내 마음이 혼미하다.)
 (12) 她垂下首, 幽幽地說道, 心有一点明白了。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으며, 마음에 약간의 깨달음이 있다.)
 (BCC)⁹⁾

위의 예문에서 살펴보듯이, 중국어 '有'자 존재문의 주어 자리에 위치한 공간어 '夢中(꿈속)', '我的心(내마음)', '心(마음)'은 모두 추상적 의미로의 [+공간성]을 나타내었다. 한중 양 언어의 존재문은 위와 같이 주어 성분이 [+구체성], [+추상성]의 공간을 나타내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예문 (10)과 (12)가 존재문에 속하나 예문 (11)은 존재문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한국어 존재문과 주격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이어서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8) 상기 예문은 北京語言大學에서 제공하는 말뭉치(<http://bcc.blcu.edu.cn/>)에서 추출하였다.
 9) 同上

- (13) a. 牆上**有**一幅畢加索的畫。 (벽에 피카소 그림이 있다.)
 b. 牆上**是**一幅畢加索的畫。 (벽에 있는 것은 피카소의 그림이다.)

위의 예문은 ‘有’자 존재문과 ‘是’자 존재문에 대한 차이를 논할 때 주로 사용하는 보편적인 문장이다. 두 문장의 의미적 차이에 관한 양태 요소들에 대해서는 아래 목적어에 대한 내용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 여기에서는 주어와 목적어 성분의 의미적 포괄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전체 문장의 의미로 보면 예문 (13a)에서 주어인 공간어 ‘牆上(벽에)’는 목적어 ‘畢加索的畫(피카소 그림)’인 개체를 부분으로 전체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청자는 그 개체가 ‘특정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개체 중 일부’로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예문 (13b)는 대개 주어인 공간에 존재하는 개체가 ‘특정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개체’로 인지하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⁰⁾

有자문 : 주어 [+공간성] 의 명사 ⊃ 목적어 [-구체성] 사물
 是자문 : 주어 [+공간성] 의 명사 ≥ 목적어 [±구체성], [+추상성] 사물

3) ‘有’자 존재문과 ‘是’자 존재문 목적어의 의미적 특성

주지하듯이, ‘有’자 존재문에서 대상은 대부분 [-한정성], [-구체성]을 나타내며 교제 및 언어 말뭉치자료 속에서도 동사 뒤 수량구의 형식으로 비한정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일반 대화 속에서 특정 문맥에 따라 제한적으로 목적어가 [+한정성]을 나타내어도 문법적으로 성립하는 경우를 이따금 발견할 수 있다.

10) 위에서 확인하듯이, 해당 표는 ‘有’자 존재문과 ‘是’자 존재문 속 주어와 목적어 성분의 의미적 포괄 관계 등은 이미 기존 연구와 학교 문법에서 다루어 왔던 내용이나 본고의 생각을 더해 분석 방향에 맞게 부호화 하여 정리한 것이다.

- (14) a. 桌子上有一封信。 (테이블 위에 편지 한 통이 있다.)
 b. 桌子上有几本書。 (테이블 위에 책 몇 권이 있다.)¹¹⁾
- (15) a: 老師, 我忘帶書了。 (선생님, 저 책을 깜빡하고 안 가져 왔어요.)
 b: 沒關係, 我的桌子上有瑪麗的書。她今天不來, 你用吧。
 (괜찮아요. 내 책상에 마리 책이 있어요. 오늘 안 오니까 쓰세요.)¹²⁾

위의 예문 (14)와 (15)을 통해 각각 우리는 중국어 존재문에서 비한정명사와 한정명사가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 화자가 특정 사물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통해 내포된 다른 의미를 수반한 간접화법의 경우에 속한다. 해당 문장은 중국어의 목적어 성분은 주로 한국어의 주격조사 '이/가'와 대응한다.

한편, 張伯江(1997)에서는 '有'자 존재문이 명사성 목적어를 수반하여 사물의 실체를 강조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정성을 나타내며, '是'자 존재문의 목적어는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한정성을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중국어 '有'자와 '是'자 존재문이 수반하는 목적어는 의미적 특성에서 차이를 가진다고 보았다. 즉, 전자는 대개 비한정적 대상을 목적어로 수반하여 'NP₁(공간어구)+VP(有)+NP₂(비한정적 사물 또는 사람)'의 구조를 나타내지만, 후자는 'NP₁(공간어구)+VP(是)+NP₂(한정 또는 비한정적 사물 또는 사람)'으로 수반하며 '有'자 존재문에 비해 대상으로의 사용 제한이 덜하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6) a. 桌子上是一只盤子, 里面有各式糕点。
 (테이블 위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는데, 안에는 각종 디저트가 있다.)
 b. 我看着桌子, 桌子上是小娜的玩具。

11) 상기 예문은 北京語言大學에서 제공하는 말뭉치(<http://bcc.blcu.edu.cn/>) 에서 추출하였다.

12) 해당 예문은 본고의 분석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필자가 직접 작문하고 원어민의 검증을 거쳤다.

(내가 테이블을 봤는데, 테이블 위는 샤오나의 장난감이다.)

(BCC)¹³)

위의 예문 (16a)과 (16b)을 통해 ‘是’자 존재문에서 비한정명사와 한정명사를 수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언어 말뭉치자료 속에서도 ‘有’자 존재문과 달리 목적어로 한정명사를 사용한 예문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더 나아가 ‘是’자 존재문의 경우 목적어의 한정성 여부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대상이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전달하고자 하는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필자가 학교 수업에서 사용하는 중국 다큐멘터리 텍스트 자료 속 문장이다.

(17) 若爾蓋西部的唐克鎮是藏族牧民的聚居地。

(뤄얼가이 서부의 탕커젠은 티베트 목축민들의 집단 거주지입니다.)

(18) 四姑娘山的東側是著名的大熊貓保護區——臥龍。

(쓰구냥 산의 동쪽은 유명한 판다 보호 구역인 워룽입니다.)

(19) 幺妹峰的南坡冰川飛挂, 西坡和北坡是數百米高的陡岩。

(야오메이펑의 남쪽산비탈은 빙하로 덮였고, 서쪽과 북쪽비탈은 수백 미터 높이의 가파른 바위입니다.)

<航拍中國—四川>

위의 예문들은 통사구조 상으로는 모두 존재문에 속하는 듯 보일 수 있겠으나, 예문 (18)과 (19) 만이 ‘특정 시공간에 존재하는 모종의 개체’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是’자 존재문이며, 예문 (17)는 목적어가 주어에 대한 특징 등을 나타내는 일반 ‘是’자문에 속한다. 이러한 ‘是’자 존재문은 제한적으로 ‘有’자 존재문과 호환이 가능한데, 崔璨·袁毓林(2019:154)에서는 [-충분

13) 상기 예문은 北京語言大學에서 제공하는 말뭉치(<http://bcc.blcu.edu.cn/>) 에서 추출하였다.

량]의 의미자질을 근거로 호환 가능 여부를 설명하였다. 그가 제시한 예문을 보자.

- (20) 桌子上**是**一支不太新鮮的玫瑰花。→ 桌子上**有**一支不太新鮮的玫瑰花。
 (테이블 위에는 별로 신선하지 않은 장미꽃이 있다.)
- (21) 照片里**是**李小明的父親。→ 照片里**有**李小明的父親。
 (사진에는 리샤오밍의 아버지가 있다.)
- (22) 教室里**是**幾個小學生。→ 教室里**有**幾個小學生。
 (교실 안에는 학생 몇 명이 있다.)¹⁴⁾

위의 예문과 같이 일부 '是'자 존재문과 '有'자 존재문은 호환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이에 관해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바로 먼저 雷濤(1993)에서는 '是'자 존재문의 배척성을 주장하며 특정 공간에 대상이 유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주관적인 배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劉俊莉(2010)에서는 '是'자 존재문의 '주관성 소량'으로의 기능을 언급하였는데, 그는 공간 내에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이 공간 대부분을 차지함을 나타내며 주관성이 강한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是'자 존재문은 많은 경우 양태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예문에서 이를 확인해보자.

- (23) 雪寶頂的北側**就是**著名的世界自然遺產地——黃龍。
 (쉐바오딩의 북쪽은 유명한 세계자연유산지 황룡입니다.)
- (24) 冰原的後面**就是**萬丈深淵。
 (빙하평원 뒤에는 깊은 연못입니다.)

<航拍中國—四川>

14) 위의 예문은 崔璨·袁毓林(2019:154)에서 발췌하였다.

위의 ‘是’자 존재문은 모두 확인 및 확신의 양태 의미를 지닌다. 기본적으로 계사 ‘是’는 앞뒤 성분을 연결시켜 동등 또는 종류나 속성 관계를 나타내는데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이러한 ‘是’의 기본적인 연계 기능과 무관하지 않다.¹⁵⁾ 이는 동사 ‘是’ 앞의 수식자리에 위치한 부사 ‘就’와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현상으로부터 우리는 전체 문장이 나타내는 바가 존재의 의미보다 오히려 명제에 대한 화자의 확신 의미가 부가된 데에 중점을 둔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어서 다음 예문을 보자.

(25) a. 一个女性夢見她走在一條路上, 前邊是机場。

(한 여성이 꿈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걸 봤는데, 앞은 공항이었다.)

b. * 一个女性夢見她走在一條路上, 前邊有机場。

(BCC)

위의 예문에서 확인하듯이, ‘有’자와 ‘是’자 존재문은 때로 호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주어와 목적어 성분의 의미적 포괄 관계 외에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是’자 존재문이 내포하는 확신 및 긍정의 의미기능 때문이다. 이처럼 ‘是’자 존재문은 ‘有’자 존재문에 비해 주어나 목적어 성분의 제한 요소가 확연히 약하게 작용하며, 의미기능 상에서도 ‘是’자 존재문이 내포하는 양태 의미로 인해 두 존재문의 의미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¹⁶⁾ 이를 기반으로 다음 장에서는 두 존재문의 한국어 대응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15) 이슬기(2021:189)에서도 ‘是’는 존재 의미 외에도 판단이나 확인의 어기를 지녀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의미가 강하며 ‘有’자 존재문의 경우 사람이나 사물의 단순한 존재 의미 외에도 발생과 출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기술하였다. 본고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존재문을 대표하는 동사는 ‘有’이며, ‘是’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낼지라도 확신 또는 확인의 의미가 우선시 된다고 보았다.

16) ‘是’자 존재문에서 주어와 목적어 성분의 의미적 포괄관계란, 대체적으로 두 성분이 가지는 추상 공간의 범위가 거의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야 하기에 제한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본고는 ‘是’자 존재문이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개입으로 인해 확인 및 확신의 양태 의미를 나타냄이 기타 존재문과 대별된다고 보았다.

4. 존재를 나타내는 '有'자문과 '是'자문의 한국어 대응 관계

본 논문의 제 3장에서는 중국어 존재문의 범주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어의 '有'자 존재문과 '是'자 존재문의 의미기능 상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이들의 차이를 잘 이해하여 교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의 대응 관계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有'자 존재문은 대개 특정 공간에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전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며, 해당 공간에서 무엇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전체적으로 부각된다. 이와는 달리 '是'자 존재문은 주로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 개체 자체를 초점화하는 기능을 하며 존재 의미 외에도 화자의 주관적인 확인 및 확신의 의미를 나타낸다. 본 장에서 한중 대조 분석을 통해 분석 내용을 확인해보자.

(26) 在成都到九寨沟的路上**有**一座鄉鎮。

(칭두에서 구채구로 가는 길에 상편이 있다.)

(27) 四川的西邊**是**雄偉的山脉与高原。

(쓰촨의 서쪽은 웅장한 산맥과 고원이다.)

<航拍中国>

중국어: 관형어+ 주어+ 방위사+ **서술어(有)**+ 수량사+ 목적어 [+ 존재], [-주관성]

在成都到九寨沟的路上**有**一座鄉鎮。

한국어: 부사어+ 부사격조사+ 주어+ **주격조사**+ **서술어** [+ 존재], [-주관성]

칭두에서 구채구로 가는 길에 상편이 있다.

중국어: 주어+ **서술어(是)**+ 관형어+ 목적어 [+ 존재], [+ 주관성]

四川的西邊**是**雄偉的山脉与高原。

한국어: 주어+ 보조사+ 관형어+ **서술어(서술격조사)** [+ 존재], [+ 주관성]

쓰촨의 서쪽은 웅장한 산맥과 고원이다.

위의 대조표를 확인해보면, ‘有’자 존재문과 ‘是’자 존재문의 한국어 대응 관계가 비교적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즉, ‘有’자 존재문에서는 주로 공간어 뒤에 부사격조사 ‘-에’를 수반하며 동사 서술어 ‘有’와 한국어 주격조사 ‘-이’를 수반한 서술어가 서로 대응 관계를 이루고, ‘是’자 존재문에서는 주로 공간어 뒤에 보조사 ‘은’을 수반하며 동사 서술어 ‘是’는 서술격조사 ‘이다’를 수반한 서술어와 대응한다. 또한 전자는 전체 문형이 ‘특정 공간에 모종의 사물이 존재하는 의미’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에 반해, 후자는 상대적으로 화자가 명제에 대해 개입하여 [+주관성]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아래에서 앞서 언급한 예문을 다시 살펴보자.

- (11) 我的心有一种恍惚。(내 마음이 혼미하다.)
 (12) 心有一点明白了。(마음에 약간의 깨달음이 있다.)

중국어: 주어+서술어(有)+수량사+목적어 [+존재], [+추상]

我的心有一种恍惚。

한국어: 관형어+ 주어+ 주격조사+ 서술어 [-존재], [+추상]

내 마음이 혼미하다.

중국어: 주어+서술어+목적어 [+존재], [+추상]

心有一点明白了。

한국어: 부사어+ 부사어+ 주어+ 주격조사+ 서술어 [+존재], [+추상]

마음에 약간 깨달음이 있다.

위의 대조표를 확인해보면, ‘有’자 존재문에서 주어 자리에 추상적 의미의 공간어가 오는 경우 공간어 뒤에 방위사가 생략될 수 있으며, 동사 ‘有’는 각각 한국어의 형용사 서술어 ‘혼미하다’와 주격조사 ‘-이’의 수식을 받는 동사 서술어 ‘있다’와 대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국어는 두 문장 모두 존재문에 해당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두 번째 문장만이 존재

문이며 첫 번째 문장은 통사구조 상 존재문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아래에서 앞서 다루었던 '是'자 존재문에 대한 예문을 다시 살펴보자.

- (16) a. 桌子上是一只盘子, 里面有各式糕点。
 (테이블 위에는 접시가 하나 있는데, 안에는 각종 디저트가 있다.)
 b. 我看着桌子, 桌子上是小娜的玩具。
 (내가 테이블을 보니, 테이블 위는 샤오나의 장난감이다.)

중국어: 주어+ 방위사+ 서술어(是)+ 수량사+ 목적어 [+ 확인], [+ 존재]
 桌子上是 一只盘子。

한국어: 주어+ 보조사+ 주어+ 주격조사+ 부사어+ 서술어 [+ 존재]
 테이블 위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다.

중국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 확인], [+ 존재]
 桌子上是小娜的玩具。

한국어: 주어+ 보조사+ 관형어+ 서술어(서술격조사) [+ 확인]
 테이블 위는 샤오나의 장난감이다.

위의 대조표를 확인해보면, 존재 의미 외에 확인 및 확신의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是'자 존재문에서 동사 '是'와 대응하는 한국어의 문장 성분은 각각 서술어 성분인 본동사 '있다'와 서술격조사 '-이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의 '是'자 존재문도 일부 '有'자 존재문과 마찬가지로, 공간어와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에서 눈여겨볼 점은 주어인 '테이블'에 보조사 '는'을 첨가하여 화제(話題, topic)로 규정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어 문장에서 주어는 보조사 '는'의 도움으로 화제화 하여¹⁷⁾ 구정부가 되기 때문에 문장의 서술어인 '장난감

17) 이익섭(2009:152)에서는 '은'과 주격조사의 차이를 초점에서 찾았다. 예를 들어 '소나무는 상록수다'라는 문장의 의미는 '여러분이 아는 소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이라는

이다'에 초점이 놓임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로 미루어 보아 위의 예문인 중국어의 '是'자 존재문 또한 동사 '是' 뒤에 초점이 놓이며 확인 및 확신 의미가 부여된 'A에 존재하는 것은 B이고, 이외에 다른 여지가 없다'라는 구문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고에서는 먼저 중국어 존재문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존재문의 범주와 '有'와 '是' 동사 서술어에 따른 의미기능 상의 차이를 살피고 한국어와의 대응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의 주제와 관련한 존재문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중국어 존재문에 대한 연구는 그 수량이 많지는 않으나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한중 대조의 연구 방법으로 중국어 존재문의 범주나 의미기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전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NPL(공간어)+V(了/着)+NP' 구조로 나타내는 동태존재문의 구조적 특징 및 수반하는 동사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중국어 존재문의 주어의 자리에 위치하는 성분은 반드시 [+공간성]을 나타내야 하며 일부는 [+구체성], [+추상성]의 의미적 자질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본고에서 정리한 '有'자 존재문과 '是'자 존재문의 주어와 목적어의 의미관계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의미이므로 이미 소나무는 초점에 대상에서 벗어나 '상록수다'에 초점이 놓인다고 설명하였다. 이로 인해, '은'의 경우 서술어 쪽에 초점이 놓임을 알 수 있다.

有자문 : 주어 [+공간성] 의 명사 > 목적어 [-구체성] 사물 是자문 : 주어 [+공간성] 의 명사 ≥ 목적어 [±구체성], [+추상성] 사물
--

셋째, '是'자 존재문은 '有'자 존재문에 비해 목적어의 비한정성 등 사용상의 제한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有'자 존재문은 객관적인 존재 의미를 나타내지만 '是'자 존재문은 문형이 확신 및 긍정의 의미기능을 내포하기 때문에 동사의 호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有'자 존재문에서는 주로 공간어 뒤에 부사격조사 '-에'를 수반하며 동사 서술어 '有'와 한국어 주격조사 '-이'를 수반한 서술어가 서로 대응 관계를 이루고, '是'자 존재문에서는 주로 공간어 뒤에 보조사 '은'을 수반하며 동사 서술어 '是'은 주로 서술격조사 '이다'를 수반한 서술어와 대응함을 확인하였다.

參考文獻

1. 서적류

-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9.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2009.
이익섭, 『한국어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이익섭·이상억·채완,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2008.
Knud Lambrecht 저, 고석주의역, 『정보 구조와 문장 형식』, 월인, 2000.
陆俭明·沈阳, 『汉语和汉语研究十五讲』, 北京大学出版社, 2006.

2. 논문류

- 김윤정, 「현대중국어 공간전경화 구문 연구」, 『중국학연구』 53, 2010.
남양우, 「한국어와 중국어의 존재문 고찰」, 『중국학』 75, 2021.
박교리, 「'是'존재문에 대한 소고(小考)」, 『중국어문학논집』 113, 2018.
왕난난, 「한·중 존재문의 구문 확장 대조 연구」, 『국어교육연구』 58, 2015.
왕 파, 「한·중 소유문과 존재문의 대조 분석」, 『한국어교육연구』 11, 2015.
이슬기, 「중국어 '유(有)'존재문과 '시(是)'존재문의 비교」, 『외국학연구』 57, 2021.
전영철, 「한국어 존재문의 구성」, 『언어학』 27, 2000.
진준희, 「한국어와 중국어 문장 의미어순 배열에서 나타나는 인지 매커니즘」, 『한민족문화연구』 44, 2013.
崔璨袁毓林, 「存在句的关系结构及其转指偏向研究」, 『华文教学与研究』 第74期, 2019.
崔璨袁毓林, 「从跟“有”字存在句的替换限制看“是”字存在句的语义特点」, 『语言科

- 学』第2期, 2019.
- 胡建刚, 「术语为“有”、“是”、“在”的存在句的语义、句法分析」, 『暨南大学文学院学报』第2期, 2001.
- 雷 涛, 「存在句研究纵横谈」, 『汉语学习』第2期, 1993.
- 刘俊莉, 「论“是”字存在句的足句条件」, 『南昌大学学报』第1期, 2010.
- 张伯江, 「汉语名词怎么样表现无指成分」, 『庆祝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生45周年学术论文集』北京: 商务印书馆, 1997.
- 张晓蝶, 「汉语存在句研究」, 『牡丹大学学报』第3期, 2014.

Abstract

A contrastive study on Chinese '有', '是' Existential Sentence and Korean

Yoon, Beach

In this study, prior Studies on Chinese Existential Sentence were first summarized, and then the Korean Correspondence Relationship was analyzed by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Construction Meaning according to the Category of Existential Sentence and Verb Predicate.

First, the Component is in the place of the Subject of the Chinese Existential Sentence must represent [+Spatial] and have some [+Specific] and [+Abstract] meaning Features.

In addition, '是' Existential Sentence has relatively few restrictive Factors in use, such as the indefiniteness of the object, compared to '有' Existential Sentence, and represents an Objective Meaning of Existence. On the other hand, '是' Existential Sentence has many restrictive Factors, and the sentence structure contains the meaning of certainty and affirmation.

In contrast between the two Languages, the Verb Predicate '有' and the Predicate accompanied by the Korean Subjective case marker '-이' are Corresponding to each other, and in '是' Existential Sentence, the '是' corresponds to the Predicate accompanied by the Predicative Particle '이다'.

Key words : Chines Existential Sentence, '有' Existential Sentence, '是' Existential Sentence, Construction Meaning, Category, Korean Correspondence Relationship

투 고 일 : 2024. 7. 10. / 심 사 일 : 2024. 7. 15. ~ 2024. 8. 15. / 게재확정일 : 2024. 8. 20.